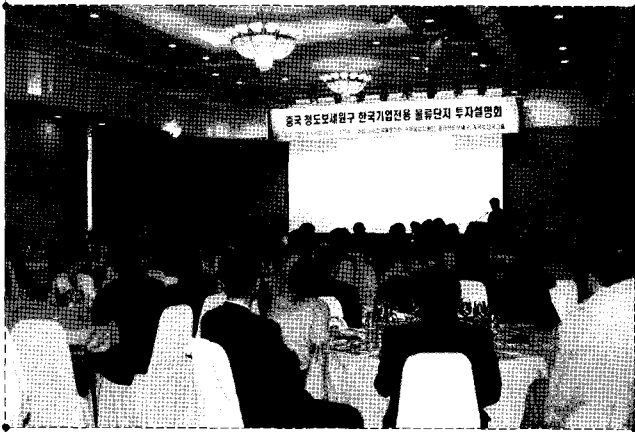


# 청도 보세원구 한국기업전용 물류단지 투자설명회 성황



금년 1월 19일 중국 청도 보세물류원구 내 10만평 규모의 한국물류기업 전용 물류단지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한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 [www.kola.or.kr](http://www.kola.or.kr))와 중국 초상국(招商局)集團(China Merchants Group, [www.cmhk.com](http://www.cmhk.com)), 중국 청도보세구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물류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물류기업들의 사업확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청도를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國富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확대 개발되고 있는 중국의 항만과 우리나라 항만과의 연계를 통한 윈-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 »청도 보세물류원구내 10만평 확보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가 건설될 청도 보세물류원구는 중국 청도시 첸만항구 내 위치하고 있는 30만평 규모의 보세지역으로, 이중 3분의 1을 한국 물류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상국그룹과 청도보세구는 총 사업비 5억 달러를 투자, 청도시 첸만항구내 총 부지 80만평에 컨테이너 부두와 보세물류원구를 조성하는 ‘첸만 보세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MOU에 따르면 한국 물류기업 전용 물류단지 내에서는 한국기업의 필요에 의해 그 규모와 투자방식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품질 기준 이상의 물류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중국 초상국 그룹이 시설투자, 이를 임차 사용하거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투자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한국 물류기업 전용단지 입주 기업들은 산동성과 주변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위한 중국내 내륙운송서비스를 통한 집하, 보관, 유통가공, 해운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천, 평택, 부산, 광양항 등을 연계한 중국 화물의 3국간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물류협회 물류연구원 허진욱 부원장은 “10만평중 5만평은 컨소시엄형태의 공동투자를 통한 공동물류센터로, 5만평은 개별기업 물류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달중 투자 기획실무단을 구성, 내달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7월 물류단지 조성에 착공해 올해 12월까지의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북아 물류거점 체계 구축

이 사업의 1차 목표는 우선 우리 제조기업 투자가 집중된 중국 산동성에 한국기업 물류단지를 구축,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또 청도를 시작으로 대련, 천진, 상해, 광주 등 지속적인 중국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국내 주요 항만 배후단지내 물류 허브를 구축, 한-중 네트워크 경쟁력을 배경으로 일본-한국-중국의 동북아 네트워크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물류거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운영 체제를 확립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비전이다.

현재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의 물류업무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물류거점으로 광양항에 5만평 규모의 물류부지가 확보된 상태. 이와 관련,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초상국과의 교차 투자도 협의중에 있다. 군장항에서도 협력 제의가 들어와 있다. 군장 국가산업단지 38만평중 물류지원시설 1만평을 중국에 세워질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와 연계하는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현재 그 규모를 5만평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의해온 상태로 군산시, 전라북도와의 공동물류센터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 »질 높은 3PL서비스 제공 가능

한편 이날 청도보세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청도 보세물류원구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임대료, 지가, 인건비가 낮다고 밀려들어왔으나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힘겨워하기에 조사해 본 결과, 물류비용이 임대료, 지가,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은 이 같은 물류문제의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3년전 한국물류협회를 방문,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한국물류협회 측에서도 중국을 방문했으나 당시로서는 중국의 개방정책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청도보세물류원구가 만들어지는 등 여건이 성숙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 조성의 의미를 제조업측면, 물류기업측면, 상거래측면으로 나누어 설명, 설명회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진출 한국 제조기업들의 경우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원부자재 조달이나 부품, 완제품의 납기 등에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에 이들 조달물자와 판매, 수출입 상품을 모아 처리하는 일괄 조달시스템과 공동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를 이용할 경우 중국에서의 판매활동도 원활해 질 것이란 기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현금과 현물이 교환되는 시장, 물건 샘플만을 보고 거래하는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청도 전용물류단지에 현물을 보관, 거래한다면 중국에서의 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포장, 라벨링, 상품 분류 등 부가 물류활동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생산은 중국에서, 재포장, 라벨링, 분류 등을 한국에서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면에서 손실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 청도 물류단지에서 부가 물류활동을 하게 되면, 물류합리화는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청도 한국기업 전용 물류단지를 이용하면 질 높은 3PL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외국 포워더들의 중국내 독자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그 때가 되면 보다 활발한 3PL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물류신문>